

마이산 신비체험 사업 순항

(지연치유)

진안군, 연인의 길·탐영제 수변공원·신비자연학습장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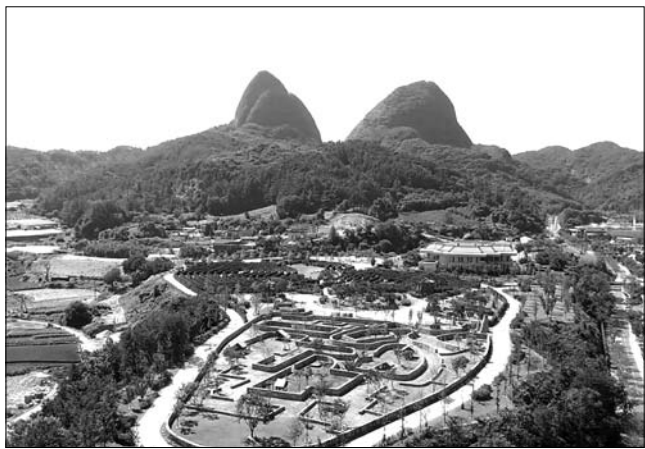
진안군이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마이산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일 진안군에 따르면 마이산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은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과 마이산의 신비한 역사자원을 결합한 역사문화명소의 거점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의 첫 번째 성과물인 명인명품관을 준공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 유일 부부봉인 마이산을 사랑이란 주제로 31억원을 투자하여 마이산 탐방로인 연인의 길 이벤트 공간 마련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산 남부도 금당사에서 탐영제 주변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한 마이산 탐방을 도모하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볼거리 제공 등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금년까지 25억



진안군이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마이산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진은 마이산 북부 전경사진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 중이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 확충과 야간경관 조명 설치, 역고드름의 신비를 홍보 체험할 수 있는 신비자연학습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향로 군수는 "마이산 북부는 체험

과 전시, 전통예술의 공간으로 마이산 남부는 역사와 신비, 전통문화의 공간으로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여 마이산이 세계 제일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 기념식·축하공연·장기자랑 가져

무주군은 20일 예천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회장 이대수)가 주관하고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무주지회(회장 주의식)와 (사)전북농어인협회무주군지회(회장 진병재)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각 단체 회원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의 시간을 함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념식에서는 이명우(45세, 무주읍), 유재성(54세, 무주읍), 김재철(73세, 무주읍) 씨가 무주군수 표창을, 권재환(47세, 무주읍), 권오신(51세, 무주읍), 백태일(77세, 부남면), 홍경자(68세, 안성면) 씨가 전북지체·시각·농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양희범(무주중 1년), 박건룡(무주중 1년), 장소영(안성고 3년), 김예린(무주고 3년) 학생이 전북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유공자 표창·어울 한마당 공연 등 진행

진안군장애인의 날 행사를 20일 이향로 군수,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진안군지회(지회장 송경효)가 주최하고 각 장애인단체가 후원하여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과 어울 한마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어울한마당 공연에서는 진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공연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문

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꽃다지 예술단의 흥겨운 축하공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송경효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2018년 풍년 기원 통수식

장계면 대곡리 오동저수지에서... 계남면 이상만 시설관리원에게 감사패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20일 장계면 대곡리 오동저수지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알리는 통수식을 했다. 이날 통수식에는 운영대원, 지역 농업인 및 직원 등 50명이 참석할 가운데 5.319ha에 본격적인 첫 영농급수를 시작했다.

무진장지사는 관내 저수지 62개소,

양배수장 3개소, 취입보 135개소, 대형관정 20개소 등과 용·배수로 887km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으며, 수원공시설의 오염원 제거, 주요 시설에 대한 수질 전수조사를 통해 청정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신교준 지사장은 "용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배수 계획으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서비스향상에 이바지한 계남면 이상만 시설관리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전직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조생종 벼 '해담쌀' 채종포 조성

진안군은 조생종 벼 품종으로 밥맛이 최고 품질인 '해담쌀' 종자 확보를 위해 자율교관 채종포 5농가 2ha를 조성기로 했다.

20일 진안군에 따르면 해담쌀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된 벼 품종으로 현재 널리 재배중인 윤관벼와 비교해 출수기가 12일 정도 빠르고 도복에 강하며 최고품질의 미질로 윤관벼 미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해담쌀의 경우 진안지역에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 채종포 조성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다. 종자생산 결과에 따라 2019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변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벼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포장관리와 검사를 통해 수확 후 건

조·정선·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염선된 종자 12톤을 금년도 11월경 자율교관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라며,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온탕소독을 할 경우에는 염수선 후 물에서 건진 종자는 10분 이내로 온탕소독을 하거나, 일반농가에서 약제처리를 할 경우에는 물 온도 30~32°C에서 48시간 종자를 담궈 약제침투가 잘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21일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주를 적천로 265번지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주민들과 무주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축하 화환은 요즘 농가와 지역인 어려움을 감안해 사양했다. 황 예비후보는 낙후된 무주를 새롭

고 더 크게 하기위해 ▲군정 자치역량강화 ▲무주형 농업경영 시스템 완비 ▲무주관광 클러스터구축 ▲무주군민 비즈니스센터 ▲복지 및 복합스포츠허브센터제공 등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국정사업과 연계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실질적 혜택은 군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우리 쌀 활용 교육' 호응

장수군은 1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은 장수군민(남성)을 대상으로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올바른 식문화 정착하고자 우리 쌀 및 한식양념장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 이념 및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요즘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남성들도 요리를 배우고 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쌀 및 쌀가루를 이용한 음식과 한식양념장을 활용한 기본 반찬류 실습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남성들에게 요리하는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기회가 제공되어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이번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과 같이 남성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쌀요리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혼밥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공무원 개인컵 갖기 운동

장수군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공무원 개인컵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최근 수도권 일부 공공주택에서 배출되는 페비닐류 등을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부문보다 앞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인컵 갖기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우선적으로 사무실에 종이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컵 갖기부터 실천하기 위해 각자 컵을 준비하고 회의 또는 민원인 응대에서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종류별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기타 가전 및 가구제품과 건전지, 형광등 등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도 배출요령을 리플릿으로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군 소속 공무원부터 시행하고 차츰 주변 기관들에게도 독려하여 확대해 갈 방침이다."며 "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